

마닐라 남북철도 연결사업 착수식 축하

존경하는 아로요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닐라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두 나라의 우의를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년 아로요 대통령께서 방한했을 때 양국이 적극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북부철도와 함께 필리핀 국내 운송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상회담과 조금 전 양국 경제인 간담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쌓아 온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전쟁 당시 7천 명의 필리핀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켜줬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아로요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의 작은 기여를 하나하나 언급하시며 과분하게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 한국 국민과 더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지적한 사업은 성의를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지적하지 않은 사업과 새로운 과제도 협의해서 만들어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과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양국 우호협력의 상징인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필리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